손 울(shorn wool)과 스킨 울(skin wool)

예전에는 양모를 깎는다는 것은 모두 손으로 바리칸트(bariquant)을 들고 깎는 수동방식이었으나, 이 근래에는 자동식 바리칸트가 많이 등장하여 편리하게 살아 있는 양의 몸에서 털을 깎는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양의 몸에서 털을 깎는 작업을 전모(剪毛 : shearing) 작업이라고 하고, 이런 전모작업으로 깎여진 양모를 손 울(shorn wool)이라 한다.

현재 세계 주요 양모 생산국에서 산출되는 양모의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양모의 대다수도 이것이다.

이와 반대로 죽은 양 또는 도살된 양의 모피(woolled sheep skin)를 단순히 시프 스킨(sheep skin)이라고 하며, 이 모피에서 깎아낸 모든 양모를 스킨 울이라고 한다. 다만 호주에서는 이것을 일차 세모(washing) 한 것을 스킨 울(skin wool)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모 방식에 따라 라임 울(lime wool), 스위트 울(sweated wool) 또는 스토브 울(stove wool)이라고 구분한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모피를 사전에 물로 세척하고, 탈모시킨 후, 건조시켜 다시 세모 공정을 거치지 않은 양모를 슬라이프 울(slipe wool)이라고 하여 세모한 스킨 울과 구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킨 울 대신 풀드 울(pulled wool)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지부 양모든 세척 양모든 상관없이 잡아 뽑는 작업(fellmongering)에 의하여 마련한 양모인 펠몽저드 울(fellmongered wool)을 스킨 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석회를 사용하여 탈모시킨 것만을 슬라이프 울이라고 한다.

죽은 양에서 양모를 채취하는 방법은 (1) 발한법(發汗法=sweating process), (2) 석회법(石灰法=lime process), (3) 페인팅법(painting method) 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방법이나 일장 일단이 있지만, 양모자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발한법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

다.

(1) 발한법

이것은 건조한 모피를 물에 침지한 후, 온도가 높은 실내에 매달아 놓고 부패균으로 모근을 부드럽게 하고, 양모를 뽑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스킨 울 산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마자메(Mazamet) 지방에서는 이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양모 자체에의 피해가 적어서 좋기는 한데, 기온이나 일기에 따라 모근이 부드러워지는데, 2~5일이나 걸리며, 비위생적으로 가죽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2) 석회법

이 방법은 모피의 내측에 석회석을 칠하여 모근 부분에 침투시켜서 모근을 부드럽게 하여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양모의 품질을 다소 떨어뜨리는 결점은 있지만, 가죽 자체에는 발한법 보다도 피해가 적기 때문에 주로 뉴질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3) 페인팅법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예전의 석회법은 양모의 촉감이 거칠어지고, 양모의 광택이 저하되며, 특히 세모 공정에서 석회를 제거시키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개량한 것이 페인팅 방법이다. 이것은 황화나트륨과 소석회(slaked lime)의 혼합물을 모피의 내측에 발라서 모근을 부드럽게 하고, 양모의 발모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으로도 24시간이면 충분하고, 일기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위생적이고 가죽에도 손상이 없다. 다만 결점이라면 약제비가 들어간다는 것과 황화나트륨 10 % 용액 만으로도 양모가 15분 만에 용해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소석회의 혼합 도포제는 양모의 축감을 거칠게 하고, 광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양모에 부착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일단 약품에 묻어 있는 양모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 뽑아낸 양모는 양모 섬유 자체의 활력도 없고, 탄력성이 부족하며, 품질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죽은 양모(dead wool)로 취급되며, 일반적인 발모와 구분한다. ♣ (공석붕)